

# “문제는 시기 놓치지 않는 발빠른 대응”

《제3의 길》과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눈뜨기》의 예

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실장

오늘날 출판시장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종수의 책이 출간되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가 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마케팅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마케팅이 살아남기 위한 철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소비자의 원자화, 테크놀로지의 발달, 변화하는 유통망과 같은 마케팅 환경의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출판기업의 운명

갈수록 원자화하고 있는 소비자(독자)의 기호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인터넷과 같은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이 소비자를 이해하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풍부한 정보를 해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해지는 유통망에 적응하는 능력에 따라 출판기업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생각의나무’는 《제3의 길》을 11월 27일에 전 거래서점에 출고했다. 11월 5일에 계약한 지 22일만이며 영국에서 원서가 출판된 지 2개월여만이다. 이 책의 번역작업은 서울대 사회학과의 한상진·박찬욱 교수가 맡았으며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네 사람이 이들의 작업을 도왔다. 그야말로 “서울대 교수를 이만큼 지독하게 부러먹을 수 있는냐?”는 항의를 들을 정도로 출판사의 독촉은 열화과 같았다. 번역자와 출판사 대표의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자본주의의 속도전에 현기증이 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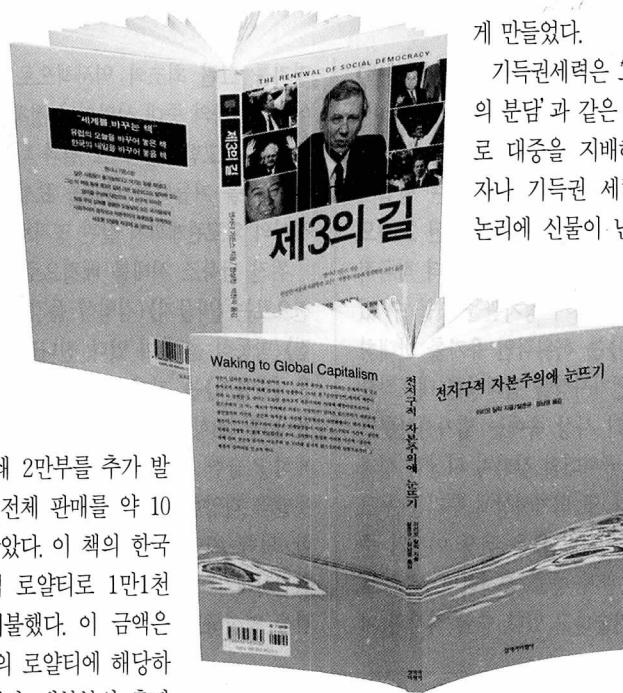
《제3의 길》은 앤소니 기든스가 “좌우 이념 대립의 역사가 끝나면서 공허해진 지식인과 독자들의 마음에 새로운 비전에 관한 상상력과 자극을 제공하는 책”(옮긴이의 말)이다. 기든스는 영국 토니 블레어 정권이 탄생하는 이론적 기초가 됐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모두 좌파정권이 들어서고 한국의 한 대표적인 지성인(스스로 보수주의이었다고 밝힌)이 TV에 출연해 “자본주의와 과학이 결합해 부도덕한 일까지도 돈이 된다면 못하는 일이 없는 이즈음에 우리는 좌파나 진보주의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때에 시기적절하게 출간됐다.

‘생각의나무’는 이 책의 초판을 2만부 발행하고, 1주일만에 2쇄 2만부를 추가 발행했는데 전체 판매를 약 10만부로 잡았다. 이 책의 한국어판 번역 로얄티로 1만1천달러를 지불했다. 이 금액은 약 2만권의 로얄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부분의 출판인들은 일개 ‘학술서’에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치 않았다. 그러나 출간 둘째주에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랭크됐다.

‘생각의나무’는 기든스의 다른 저서들의 그간 판매에 집착하지 않았다. 이 책의 컨셉을 엘빈 토플러식의 미래예측서로 보았다. 표지에 저자 사진과 함께 김대중, 토니 블레어, 슈뢰더, 조스팽 등 현실 정치인의 사진들을 배열하고 뒷 표지에 “세계를 바꾸는 책/유럽의 오늘을 바꾸어 놓은 책/한국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책”을 진한 바탕에 백발로 뽑았다. 《제3의 길》이 국내에 좌파가 될지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분명 우리 사회도 새로운 이념적 지평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4·19세대, 6·3세대 등 사회의 양심세력들이 대부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들의 침묵은 현실 정치세력이나 기득권세력을 부패하

《제3의 길》은 계약한 지 22일 만에, 원서가 출간된 지 2개월 만에 나와 출고된 둘째 주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반면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눈뜨기》는 오랜 번역작업 끝에 출간시기를 이미 실기한 상황에서 세상에 나왔다. 학술서가 도식적 틀에서 벗어나 순발력 있게 대응할 때 출판시장은 살아난다.



게 만들었다.

기득권세력은 그동안 ‘고통의 분담’과 같은 기괴한 논리로 대중을 지배해왔다. 위정자나 기득권 세력의 교묘한 논리에 신물이 난 대중은 이미 《인물과 사상》(개마고원) 1호의 판매를 5만부로 올려놓았다. 8호까지 나온 《인물과 사상》

은 매호 2만부 이상의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 월간 《인물과 사상》도 1년이 안돼 정기구독자가 7천을 넘었다. 3권까지 나온 《판지일보》(자작나무)는 모두 14만부 판매됐다.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개마고원)는 열흘만에 1·2쇄 합계 1만질이 매진되고 곧 3쇄에 돌입했다.

## 도식적 틀에서 벗어난 순발력 요구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눈뜨기》(창작과비평사)는 여전히 전형적인 학술서 티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미 1991년부터 쏟아져나온 담론인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대한 책 중에서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판단해서 퍼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번역작업이 오래 걸리는 통에” 94년에 세상에 나온 책이 98년에나 번역출간됐다.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익에만 축수를 내밀고 있던 금융자본

이 우리나라에 IMF라는 선물을 안겨준 뒤에 출간되다보니 초판부수를 2천부로 잡았다. 기든스의 다른 저서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한울)의 ‘옮긴이 서문’에도 “이 책의 번역을 시작한 것은 1995년이지만 했수로 2년이 지난 지금에야 번역서로 출판”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의 역자들은 자신의 게으름(?)으로 인해 출간이 늦어지는 것이 자신이 다른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한 냄새를 풍긴다.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눈뜨기》를 펴낸 창작과비평사는 최근 러시아가 기아상태에 빠져 있을 때 《소련경제사》를 펴냈다. 망해버린 소련의 경제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으리란 법도 없지만 대중의 관심은 ‘망’한 데보다 ‘흥’한 데 있으므로 시기를 놓친 출판이라고 봐야 한다. 《사회와 망언 사이에서》(원제 《패전후론(敗戰後論)》)는 김대중 대통령이 방일 이전에 출간됐으면 더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이 ‘망언의 수위’는 이미 강그리 잊어버리고 온통 ‘문화개방’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을 때야 출간됐다.

이만한 학술서들을 꾸준히 펴내는 노력은 평가받아야 하겠지만 아직도 도식적 틀에 갇혀 있다보니 순발력 있는 대응이 부족했다. 오늘날 책시장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학교에서는 강의교재를 모두 디지털화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150개 출판사와 출판유통업 컨소시엄이 구성돼 편의점에 설치된 전자책 자판기에서 책은 물론 신문·잡지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위성 전자책 시스템을 추진중이다. 이럴 때 출판마케터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이미 결론이 났다.

우리에게는 학술서 아니면 대중서였다. 완충적인 교양서 시장이 부족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웬만한 학술서를 대중과 호흡하는 언어로 사회변화에 긴밀하게 번역해주는 전문가 집단을 빠르게 육성해야 한다. 그야말로 ‘글로벌(Global)’ 시대에 출판 전문 프리랜서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빠르게 맹활약을 할 때 출판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